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견주관절

논문제목 주관절 상과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순응도

영문제목 **Patients' compliance for the conservative treatment of the epicondylitis**

발 표 자 김도윤

책임저자 이광현

저 자 김도윤, 이창훈, 김보현, 이광현

기 관 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상과염의 주된 치료는 비수술적인 방법이며 약 90%의 환자들이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된다. 저자들은 상과염 환자들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병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상과염의 주된 치료는 비수술적인 방법이며 약 90%의 환자들이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된다. 저자들은 상과염 환자들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병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 : 총 82명의 환자 중 본원에서 권유한 치료 방법을 유지한 환자는 65명(79.3%)이었다. 정확한 병명을 기억하고 있는 환자는 18명(22%),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발병원인이거나 기전을 알고 있는 환자는 36명(43.9%), 병명이나 기전을 전혀 모르고 있는 환자가 28명(34.1%)이었고, 이 중 본원에서 권유한 치료 방법을 유지한 환자는 각각 12명(66.6%), 30명(83.3%), 23명(82.1%)으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3$). 상과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통해 알아본 적이 있는 환자는 17명(20.7%), 알아본 적 없는 환자는 65명(79.3%)이었고, 이 중 권유 받은 치료를 유지한 사람은 각각 13명(76.5%), 52명(80%)으로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p=0.74$). 전체 환자 중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65명(79.3%), 호전되지 않았던 환자는 17명(20.7%)이었고 이 중에 각각 56명(86.2%), 9명(52.9%)이 권유 받은 치료방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6$).

결론 : 병에 대한 인식이 있는 환자 중 42명(77.8%), 없는 환자 중 23명(82.1%)이 권유 받은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환자들의 병에 대한 인식이 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타당하지 않았다. 반면, 최종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에 불응성의 상과염 환자들이 존재하고 그런 환자들이 여러가지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 :

상과염, 보존적 치료, 순응도